

작가인 베일이름 버거기는 오만한 독자가 도는 버
 ㄱ - ㄹㄹ ㅅ ㄴ ㅇ만 ㄴ 독 ㄱ ㄷ ㄴ ㅁ



마음을 끄는 작품을 읽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책날개에 담긴 작가의 사진을 본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질문을 떠안고 있는 판독 불가능한 얼굴. 마뜩찮을 이유는 없다. '베일에 싸인 작가'가 아니라, '베일을 두르는 작가'가 사실인 까닭이다. 작가인 김형경 역시 선불리 맞닥뜨려서는 안 될 금기로 '작가의 맨얼굴'을 쫓고 있기도 하다. 베일을 두르고 싶지 않아도 둘러야만 하는 숙명을 감당하고 있을 작가도 있으니, 여기서 소개하는 전시와 책을 통해, 작가의 집필일상과 이면을 보며 마음을 달래보는 것도 괜찮겠다.

언어와 사물과의 만남-작품의 서두와 문방사우전' 전시

장소 영인문학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기간 2004년 5월 30일까지
 내용 문인 100여 명의 작품 서두원고와 서재에서 쓰던 서재용품
 시간 오전 10:30분~오후 05:00 (월요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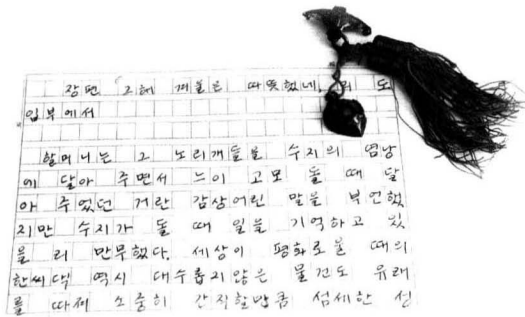
영인문학관에서 전시중인 '언어와 사물과의 만남-작품의

서두와 문방사우전'은 국내 작가 100여 명의 집필일상을 넉넉하게 보여준다. 이광수, 선우휘, 강신재, 안수길, 황순원 등 작고한 근대작가부터 박경리, 박완서, 김원일, 이재하, 김채원, 심상대, 권지예 등 현재에도 집필중인 작가들의 애장품과 육필원고가 전시되었다. 박완서의 단편 <해산바가지>의 모티브가 됐던 잘생긴 해산바가지, 평생을 갖고 다니다 딸에게 물려준 이광수의 영문 신약성경, 깃털펜부터 명품 만년필 몽블랑까지 시인 성춘복은 동서고금의 문방구 컬렉션을 차려놓았다. 작가들의 애장품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다. 나무를 깎아 만든 재떨이, 투박한 질그릇은 박경리의 애장품인데,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은 작가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적 색채의 시를 써온 홍운숙의 애장품에는 십자가 조형물이 놓여 있고, 해방 때까지 럭비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빈 시인 조병화의 애장품에는 미니어처 럭비공이 자리하고 있다. 작가들의 육필원고를 보는 맛도 색다르다. 소설가이자 화가인 이재하의 필체는 유유히 흐르는 듯 미적인 기운이 넘치며,





《한국 근대작가 12인의 초상》 이상진 지음 | 옛오늘 | 342쪽 | 값 12,000원
 《삶은 조심스럽게, 문학은 거침없이》 한명희 지음 | 오종은 사진 | 천년의시작 | 288쪽 | 값 9,500원



한승원의 필체 역시 그에 뒤질세라 흘림이 도도하다. 원고지 한 칸이 배좁다는 듯, 모든 글씨가 사각형의 틀을 가득 채운 윤홍길의 필체, 둔각으로 기운 멋스런 김홍신의 필체도 눈길을 끈다. 작가들의 분신인 붓과 펜은 기본, 마르시아스 심의 수동타자기 maratho-910TR, 유재용의 워드프로세서 Lemot II, 컴퓨터가 귀했던 시절 한구면 씨가 외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해 주었다는 이어령의 컴퓨터 micronet 등 작가들의 집필도구 변천사도 주요한 전시 감상 포인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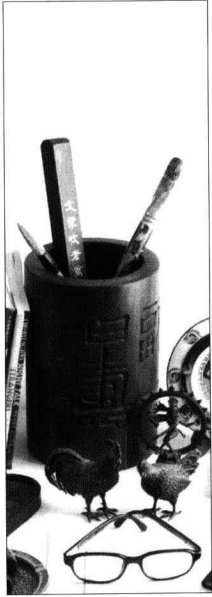
전시를 통해 작가의 집필일상이 소개된다면, 두 권의 책

《한국 근대 작가 12인의 초상》과 《삶은 조심스럽게, 문학은 거침없이》는 작가들의 문학적 혹은 개인적 사생활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상진의 《한국 근대 작가 12인의 초상》은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황순원 등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12인의 삶과 문학, 그 접점에 위치한 무수한 기록들을 담고 있다. 살아 숨쉬는 판소리 문체를 구사한 김유정이 판소리 명창인 박녹주를 짝사랑했고, 모더니스트 이상이 애정도피를 한 여동생에게 앞날을 축복하는 편지를 썼으며, 지독한 가난 이야기를 실감나게 묘사했던 최서해는 소설보다 더한 가난을 체험했다. 책에서 가장 흥미를 돋우는 부분은 염상섭과 김동인의 관계. 김동인이 <발가락이 닳았다>를 발표하자 소설의 내용을 두고 시비를 따지던 둘은 15년 동안 관계를 끊게 된다. 술꾼으로 이름난 테다 늦장가를 간 염상섭은 김동인이 분명 자신을 모델로 했을 것이라 단정한 것이다.



한명희의 《삶은 조심스럽게, 문학은 거침없이》는 현대작가

들의 작품세계를 더듬는 한편, 그들의 사생활을 거침없이 들려준다. 시인 나희덕은 경우에 맞지 않는 일을 두고 못 보는 정의파. 부조리한 얘기가 오고 가는 술자리



에서 술상을 둘러엮은 나희덕의 용기백배한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 소주건 맥주건 한 잔밖에 마시지 못하는 위인이란 점도 재미있다. 남자를 말하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동물', '신비하고 예쁘고 불쌍하다'고 말하는 시인 문정희는 왕년에도 잘 나갔고 현재도 잘 나가는 배우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남자의 벗은 등을 봐라. 얼마나 불쌍한데"라고 도발적인 감상평을 들려주기가 지 한다. 저자는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면 천양희를, 인생상담이 필요하다면 신달자를, 일상적이지 않은 사고와 행동들로 시인이란 작자의 꼴도 보기 싫다면 이수익을 만나보기를 권한다.

앞의 전시와 두 책을 통한다면, 작가의 이면이 더 이상 낯설

것도 신비로울 것도 없다. 작가가 직접 베일을 두르는 이유란 많은 독자들을 곁에 두고 싶은 이율배반인 것. 그러나 그들이 슬쩍 벗어놓은 베일이 아니라, 직접 그 베일을 벗겨보고 싶은 독자라면 관심 있는 작가의 작품을 모조리 찾아 읽기를 기지는 권한다. 작가 양귀자에 대해 말해본다면, 출판사를 경영하는 심만수 씨가 부군이라는 것, 어릴 적 순정만화가 엄희자의 팬이었다는 것, 오빠가 많은 집의 딸이라는 것 등 작가가 당혹스러울 만큼 많은 팩트를 기지는 밝힐 수 있다. 일면식도 없는 기자가 그러한 팩트를 얻은 데는 오로지 작가의 책을 통해서였다. 판독 불가능한 얼굴로 눈길을 피하는 작가의 사진을 보는 것보다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팩트의 조각들을 맞춰보는 것이 낯잡지 않은지. 혹여 어느 날 당신 앞에 나타난 작가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니 놀랍다"고 말을 건넨다면, 판독 불가능한 얼굴로 "글쎄요", 해보는 것은 또 어떨 텐가. ■

박용두 기자

